일본 이주 베트남인 구심점 '사찰'

카나가와현 '쭈어 비엣남 사원' 이민자 위로

조우인 객원기자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외국인 공동체인 베트남인들이 불교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이주민간의 유대를 이어나가고 있어 화제다. 9월 9일 일본의 '교도통신' 은 영문판을 통해 베트남 이주민들과 불교의 이야기를 특별 보도했다.

도쿄 남쪽에 위치한 카나가와현, 아이카와 마을에 소재한 '쭈어 비엣남(Chua Vietnam)' 은 베트남 이주 공동체가 세운 베트남불교 사찰이다. 2012년 완공된 쭈어 비엣남 사원은 붉은 유리기와에 황금빛 용으로 장식한 베트남 전통사찰의 외관으로 지어졌다. 외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은 베트남 이민자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 수십 명의 베트남 신도들이 참석하고, 큰 법회나 특별한 날에는 수 백 명의 이주민들이 모인다. 이들 중 일부는 일부러 먼 지역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월남에서 보트피플로 탈출한 난민들도 이 사찰을 찾아온다.

카나가와 현에서 기술연수생으로 거주중인 우티 트랑 씨는 "절에 오면 베트남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항상 즐겁다. 바쁜 일상 속에 쉴 수 있는 장소"라고 기쁘게 말했다. 트랑 씨와 함께 법회에 참석한 응우옌 둥히우 씨도 "절에 오면 직장의 스트레스를 떠날 수 있다"며 트랑 씨의 말에 공감했다. 두 사람은 모두 다른 베트남 이주민들의 소개를 통해 사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주지를 맡고 있는 누한 안 스님은 "불교는 베트남의 주요 종교로 언제나 베트남 인들과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12%가 불교도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베트남 전통양식 건립
정기법회에만 수십 명씩 몰려
월남 보트피플 난민도 찾아와
330만 베트남인 위한 공동체

스님은 "베트남 노동이민자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고향을 그리는 등의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사원이 그들을 위로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서 태어난 베트남 2세들이 베트남어를 구사하지 못하면서 내적갈등은 물론, 일본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이주민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일본 내 베트남 사찰 쭈어 비엣남. 사진출처=교도통신

누한 안 스님은 "젊은이들이 사원을 찾고 다른 베트남인들과 만나 베트남어를 연습하면서 자신들의 뿌리인 베트남 문화를 접하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베트남 불교와 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베트남인들이 이곳을 찾기 바라는 마음에 SNS 등을 운영하면서 젊은 신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 전쟁 말, 월남에서 망명한 베트남 보트피플 난민들도 이 사찰을 찾아 향수를 달래고 있다. 월남에서 경찰로 일하다 탈출한 한 난민은 현재 일본으로 귀화해 타케후미라는 일본이름을 쓰지만 가족들과 함께 사원을 찾았다.

타케후미 씨는 "쭈어 비엣남 사원이 세워지기 전엔 일본사찰을 빌려 법회를 모셨다. 다른 국가 이주민들에 비해 일본에 베트남인들이 모일 장소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전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은 330만 명이 넘지만 베트남 불교사찰은 단 10여 곳뿐이다.

타케후미 씨는 "3명의 아들 중 오직 장남만이 어설픈 베트남어를 구사한다. 자식들의 뿌리가 베트남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정기법회는 물론, 베트남 전통축제에 항상 참가한다고 말했다.

세계화 시대 속에서 수많은 문화들이 융합되는 가운데, 불교를 통해 문화정체성을 지키는 베트남 이주 공동체의 행보에 기대가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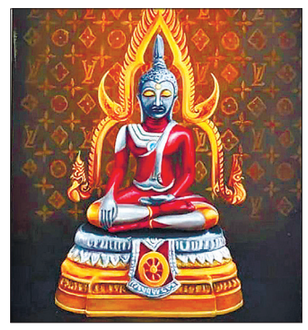
'울트라맨 부처님' 불교 모욕인가

태국서 학생 그림 논란… 문제없다는 반박도

불교신자가 대부분인 태국에서 일본 특수촬영물 캐릭터인 '울트라맨' 을 부처님으로 그린 그림이 논란을 빚고 있다. 9월 13일 '로이터 통신' '타이비자 뉴스' 등 해외 언론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수 불교계에서는 '불교 모욕' 이라는 입장을, 일각에서는 작가 의도를 보라는 반박의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9월 10일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 주(州)에 소재한 쇼핑몰에서 모 미대 소속 학생들의 전시회가 열렸다. 이 중 한 여학생이 출품한 4점의 그림이 도마에 올랐다. 그림은 일본의 특촬 드라마 캐릭터인 울트라맨의 몸에 부처님 얼굴을 그리는 등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묘사됐다. 그림을 그린 학생은 "인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평화를 유지하는 울트라맨과 같은 영웅으로서 부처님을 보여주고 싶다"고 작품 의도를 전했다.

이 그림들이 SNS에 퍼지면서 보수 불교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태국 문화장관 이띠뽄 꾼쁠렘 장관은 "창작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종교에 대한 조롱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학생은 결국 주지사의 참관 하에 주의 최고위 스님 앞에서 공개 참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불교단체는 그림을 그린 학생과 전시회 관계자 4명을 고발했다. 태국에서는 종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며, 최고 징역 7년형이 주어진다.


문제가 된 4점의 그림 중 하나. 부처님이 울트라맨으로 묘사됐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반면 작가 의도를 보라는 반박도 만만찮다. 태국의 유명 미술가 찰렘차이 코싯삐빳은 "이러한 논란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영웅의 몸과 얼굴로 부처를 표현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불교계 내에서도 작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국 중부에 위치한 사찰 왓 쑤안 까에우는 사찰의 명의로 "이 그림은 불교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학생이 잘 알고 있는 대중문화의 이미지로 부처님을 묘사한 것"이라고 지지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무인사찰서 도난된 불상 환지본처

와카야마현 케조지 본존불
경찰 수사서 용의자 체포

돌보는 사람이 없는 빈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선 최근 성보 도난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보시금이나 불구는 물론 본존불마저 도난을 당하고 있다. 반면 도난된 본존불을 무사히 되찾는 기쁜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 9월 9일 일본의 '기이민보' '아사히신문' '라이브도어 뉴스' 등의 매체들은 올해 초 도난당한 불상을 되찾은 한 사찰의 소식을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일본 간사이 지방의 와카야마(和歌山)현 타나베(田辺)시에 소재한 사찰 케조지(華蔵寺). 도난당했던 석가여래좌상은 좌대에 1421년에 조성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역신앙과 불교미술사에 중요한 불상으로 현립박물관의 특별전에 전시된 적도 있는 문화재급 불상이다.


반환된 불상을 다시 불단에 모시는 사부대중.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이런 불상을 본존으로 모신 케조지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임에도 인근 타 사찰의 주지스님이 해당 사찰의 주지를 겸임하고 있는 무인 사찰이다. 아무도 상주하지 않는 상황이 약 반세기 가량 이어져 도난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존불은 올해 2월경에 도난당한 것을 주지인 쿠키 세이죠 스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CCTV 등의 보안장치가 없는 무인 사찰에서 불상의 행방이나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와카야마현 경찰은 별도의 절도사건 용의자였던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도난당한 불상은 보통 고미술상 사이에서 거래되기에 되찾기가 어렵다. 이번처럼 매각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전했다.

조사과정에서 남성은 지인인 고미술상과 모의하여 불상을 케조지에서 탈취,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택에서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모의한 고미술상이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로 밝혀져 한 번 더 충격을 줬다.

경찰은 9월 7일 공식적으로 케조지에 불상을 반환했다. 주지인 세이죠 스님과 30명의 신도들이 함께 불상을 모시고 봉안식을 봉행했다. 세이죠 스님은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주신 부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매우 기쁘면서 안도감이 든다"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봉안식에 참여한 오코치 토모 와카야마 현립박물관 학예사는 "재도난 방지를 위해 사찰과 협의 후 3D프린터를 이용, 동일한 불상을 제작해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어 朱印, 일본서 인기몰이

티베트 출가 일본 스님, '주인열풍' 중심에

관음성지로 유명한 일본의 천년고찰 엔교지(圓教寺). 최근 이 절의 명물이 생겨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다. 9월 11일 일본 '코베신문' 은 엔교지에 붉은 옷의 티베트 스님이 써주는 티베트어 주인(朱印)이 화제라고 보도했다.

주인을 써주는 스님은 티베트 불교로 출가한 일본인 오쿠다 츠요시 스님. 오쿠다 스님은 2001년 티베트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싸꺄파에서 꾼가땐빠라는 법명으로 출가했다.

이후 남인도에 소재한 2곳의 티베트 사찰에서 13년간의 전통강원 체계와 엄격한 시험을 거쳐 2015년에 일본인 최초의 켄뽀(한국의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쿠다 스님은 "네팔에 있는 티베트어 학교를 다니던 중 인도에서 온 티베트 스님으로부터 '우리 절에 놀러오라' 라고 권유 받은 것이 출가의 계기였다" 며 웃어 보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인도의 종사르 사원에 갔다가 그곳의 스님에게 "티베트 불교엔 일본에 전해지지 않은 가르침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곳에서 수학을 시작, 4년째 되던 해에 출가했다.

오쿠다 스님은 "출가한 이상 부지런히 정진하자는 마음으로 켄뽀학위까지 취득하게 됐다. 켄뽀가 된 그 해 일본에 귀국해 인도에서 배운 소중한 불법을 어떻게 회향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고 과거를 회상했다. 마침 지역사찰에서 주지를 지내는 일본인 도반의 소개로 이듬해 엔교지에 머무르게 됐다. 당시 엔교지 스님의 권유를 받아 티베트어 주인이 탄생하게 됐다.

오쿠다 스님이 써주는 주인에는 티베트어 필기체로 엔교지의 이름과 참배일시 등이 쓰여 있다. 티베트어로 된 주인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은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는 주인 수집 열풍을 타고 조금씩 퍼졌다. 많을 때엔 하루 300명 이상의 참배자들이 주인을 받아갔다. 박영빈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